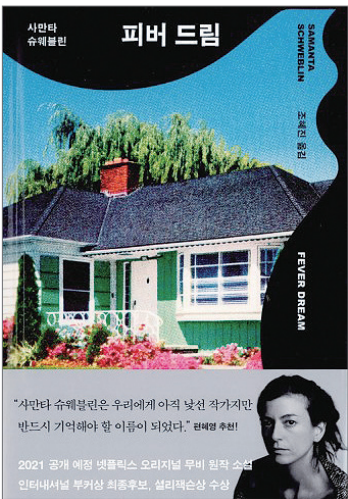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⑬ 사만타 슈웨블린『피버 드림』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객체들의 세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만타 슈웨블린『피버 드림』

하는 아만다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독성물질에 노출돼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작가 슈웨블린은 인간의 환경과 괴로 인해 ‘구조 거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고발한다. 하지만 현실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죽음의 위험을 간신히 넘긴 다비드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에 노출된 오리, 말, 강아지 등과 교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 생명을 잃은 동물들을 묻어주고 그곳에 머물며 이들의 죽음을 지켜주고 애도한다. 이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다른 존재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상기시켜 준다. 다른 한편으로 다비드는 사물의 변화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슈웨블린은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는 사물들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를 과학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과 발전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은 이 재앙적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인간중심주의의 탓에 다시 한 번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BTS는 자신들의 노래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난 겨우 사람인가 봐”라는 가사를 통해 인간의 위치를 상기시킨다. 이는 염세적인 사고라기보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존재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피버 드림』 역시 먼저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제안한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고 다른 존재를 구조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다.

사물의 이야기를 들어라



박 정 원
교수 · 스페인어학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2년, 우리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 배우고 있다. 화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그 사이의 존재인 바이러스에 그동안 별반 관심이 없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였는데도 말이다. 사실 대상과 객체에 관한 관심은 최근 철학에서도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일례로 객체지향존재론의 경우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한다.

인간을 주체로, 세계를 객체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해 동물, 식물, 공기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를 평등한 객체로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객체들의 세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사만타 슈웨블린의『피버 드림』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누락됐던 주변 환경과 객체의 의미를 되묻는 소설이다. 슈웨블린은 현재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 작가로, 라틴아메리카 환상문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보르헤스와는 또 다른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소설가이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축구와 메시, 탱고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의 숫자가 사람보다 많은 세계적인 목축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대평원을 바탕으로 밀, 옥수수, 대두(大豆)를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한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규모의 농장과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다.

『피버 드림』은 일종의 스릴러 소설로 평온한 한 시골 마을의 이면을 보여준다. 긴박하고 빠른 전개로 도중에 책장을 덮을 수 없을 만큼 흥미를 자아낸다. 이 소설은 병원에서 죽어가는 젊은 엄마 아만다와 다비드라는 소년의 대화만으로 진행된다. 독자들은 주인공

들이 살아있는지, 이미 유령이 돼버린 존재인지 알 길이 없다. 오직 진행되는 대화를 통해 그 정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 긴장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몰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어린 다비드는 엄마가 도망간 말을 찾으러 간 사이 개울가에서 놀다 독성 물질에 오염된다. 말은 이미 죽은 채 발견됐고, 겨우 목숨을 구한 이 소년은 예전의 다비드가 아니다. 유전자 조작된 대두의 대량 생산을 위해 사용된 화학 비료가 토양에 스며들고 인근 마을의 늪지로 흘러들면서 수원(水原)을 오염시킨 것이었다.

아만다는 어디를 가든 딸 니나를 데리고 다닌다. 도시가 아닌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 안심하지만, 항상 자신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딸을 두고 싶어 한다. 이 책의 스페인어판 원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조 거리’이다. 아만다는 말한다. “나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거든. 딸 아이와 나를 갈라놓는 그 가변적인 거리를 구조 거리라고 부르는 거지. 나는 그 거

리를 계산하며 반나절을 보내. 그러나 항상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보다 더 많은 위험을 상상하지.” 현대의 기술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안락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불안감을 느낀다. 한 사상은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과 집착을 낳고는 한다.

아만다는 딸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모성본능으로 위험을 직감한다. 하지만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구조 거리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성장과 발전, 편리와 통제를 위해 인간은 주변 환경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파괴했다. 하지만 우리는 망가진 자연을, 병들어가는 다른 생명을, 달라진 주위의 사물을 느끼고,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만을 돌볼 뿐이었다. 이제 자연은 가시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돼 나타나 우리에게 폭력을 되돌려주기 시작한다. ‘구조 거리’에 집착